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영향요인

Internet Addiction among youths and related variables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연주*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혜연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in, Yeon Ju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Hye 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Internet Addiction among youths who are main users of computers and internet and related variabl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520 stud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on Jeju and analyzed catmod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se the efficienci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the viewpoint of Young's criteria, it revealed that most young people(68.5%) use the internet at the level of occasional problem-solution users. The percentage two groups of average on-line users and internet addicts were 27.3% and 4.2%, respectively.

Second, the variable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of internet addiction group are gender, the number of brothers, adaptation to school life, mother's age, and family control of internet use.

* 연락처자: 진연주 (77jinju@hanmail.net)

Third, the variables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f average internet users group referred to internet addicts group are gender, adaptation to school lif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the number of visits to private computer establishments.

Key Words : youth, Internet Addiction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이용자수는 1994년에 13만명, 1997년 165만명, 그리고 2001년에는 240만명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만 7세 이상 65세까지 인구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1,297만 명(한국전산원, 2000)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인터넷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미래사회의 유용한 하나의 도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활의 편리성과 함께 생활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인터넷은 사회에 부정적인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은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1995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Goldberg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 : IAD)으로 일컫은 것이 시초이며, 같은 해 심리학자 Young이 미국심리학회에서 인터넷 중독척도를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에서 인터넷 중독을 지나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심각한 사회적·정신적·육체적·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면서 여기에는 통신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 및 채팅중독이 있

는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은 흔히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보다 주된 이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젊은 세대가 인터넷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은 높은 컴퓨터보유율,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시설 좋고 저렴한 가격의 PC방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은 장시간의 학습시간으로 인해 적절한 여가기회가 많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인터넷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로워 쉽게 여가생활로 자리잡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이러한 배경은 자아개념이나 통제력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제로 2000년을 전후로 청소년인터넷 이용의 문제점 및 그 중독의 위험가능성을 다룬 선행연구와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송미화, 2001; 안석, 2000; 윤재희, 1998; 중앙일보, 2001, 5월 2일; 조선일보, 2001, 7월 7일; 한국일보, 2001, 11월 27일; 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 이상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 가정 및 나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울, 외로움,

공격성(김종범, 1999; 최미정, 2000) 등의 관점에서 주로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은 정보화와 관련된 인적 능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회적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의 사회화 내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가정의 주된 경영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는 주로 가정이며(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컴퓨터가 자기 방에 있는 경우 인터넷 중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특성상 독립의 욕구가 강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통제적일 때 인터넷 중독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최영선,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정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생활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능성의 관점에서 가정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가정학 분야에서 살펴본 연구는 서주현(2001)과 이정연·최영선(2002)의 연구가 유일하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실태부분에 그치고 있어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청소년의 어떤 특징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고 인터넷 중독수준별로 청소년 집단을 구분한 후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상담, 교육, 연구 및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중독이란 원래 약물의 사용에 과도하게 얽매이고 약물의 공급을 계속 원하고 약물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충동적인 약물 사용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APA, 1994; Freeman, 1992). 그러나 최근 들어 중독이 여러 가지 양상에서 비롯되면서, 중독은 약물에 의한 중독에서부터 중독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까지 그 개념이 광의로 사용되게 되었다(Alexander & Scheweighofer, 1998).

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1990년 후반에는 인터넷에서도 중독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중독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던 Goldberg(1995)는 인터넷 사용을 더 많이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포기하는 사태가 12개월 중 발생할 시에 이를 인터넷 중독증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강박적 인터넷 장애와 인터넷 중독, 컴퓨터 및 가상공간 중독, 인터넷 의존성, 인터넷 중후군 및 PC중독 등으로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도 차이가 있다(안석, 2000; 이봉건, 1999; Young, 1996).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에 너무 탐닉해 병적 증세를 나타내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현실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상현상을 경

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생활상, 즉 가족관계, 대인관계, 일, 학교 생활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김현수 역, 2000)에 그 심각성이 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이 다른 중독 현상처럼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약물중독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상실, 갈망과 내성증상, 사회적 철수, 결혼 불화, 학업 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Stein(1997)은 인터넷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거나 진정한 실제 관계를 피상적인 가상적 관계로 대체시키는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이나 기능적 손상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텍사스 대학 상담센터의 Scherer는 인터넷은 사회적 공간을 채워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중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Kennedy, 1998). 하버드 의대 교수인 Orzack(1999) 역시 부적절한 컴퓨터 이용은 반복적 약물 사용과 비슷하여 병적 도박이나 충동적 쇼핑과 유사한 문제라고 하였다.

인터넷의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과다사용은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기존의 약물중독에서 보여지는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 청소년들은 그 특성상 인터넷에 탐닉하기 쉬우며, 특히 학교 부적응 청소년, 자기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경쟁에 대한 부담이 많은 청소년, 학업성취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도구가 되기 쉽기(홍경희, 2002) 때문에 인터넷 중독이 발생하기 좋은 집단이다. 이러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의 문제와 학업에서도 손실을 가져와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며 심리적·사회적·직업적 기능에 가져오는 실제적인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

2.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실태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보다 인터넷 사용에 더 적극적이고 사용빈도도 많으며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과 장애를 겪는 경향이 높다.

Brenner(1997)는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분류된 집단은 중독현상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보이는데,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2001)가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감 123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생들의 인터넷 중독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유형은 게임중독 56.45%, 채팅중독 17.4%, 음란물 중독 13%, 자살이나 폭발물 등 기타 중독 13%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2000)의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학생 1000명 중 30%가 사이버중독에 빠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 중 9.6%가 중증 중독이었고, 가벼운 중독도 26.0%로 나타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Kennedy(1998)가 텍사스 대학에서 5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8%가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오래 온라인상에 머무르며, 1/3이상이 사회, 학업, 직장에서 인터넷 과도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상하이의 지아오통대학에서도 지난해 퇴학생과 자퇴생 237명 중 80% 이상이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 학생으로 밝혀져(한국일보, 2001, 11월 27일), 젊은 세대의 인터넷 중독이 갖는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남녀 396명을 조사한 결과 76%가 주당

40시간 이상 컴퓨터 통신에 빠져 있었으며, 82%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중독 현상이 나타났으며 58%는 통신이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Young은 인터넷 중독수준을 검사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문항별로 답한 점수를 더하면 20-100점 사이의 점수를 갖게 된다. Young에 따르면 20-39점 집단은 평균적 온라인 이용자로 온라인 이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용자 집단이다. 40-69점 집단은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집단이며, 70-100점 집단은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자 집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이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방문 상담의 기록을 재분류한 결과 전체 상담 1,477건 중 인터넷 문제 상담은 91건으로 6.4%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Young의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문화센터와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가 님스커뮤니케이션의 한메일 회원 14,11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6%가 심한 중독 증세를 나타냈고, 61.7%가 크고 작은 증세를 토론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네티즌의 약 6%만이 인터넷 중독자로 파악되 우리나라 수치보다 훨씬 밑돌았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김선우(2002)는 전국의 15-39세 남녀 5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7%가 인터넷 중

독증세를 보였으며, 연령별로 20대와 30대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각각 29.4%와 22.8%였던 반면 10대는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38분으로 약 4시간이었다.

이혜진(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중독적 성향은 73.2%이며, 심각한 중독은 12.8%로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에 이미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재희(1998)는 컴퓨터 사용경험이 많은 대학생 53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을 검사하였다. 21명이 인터넷 몰입자로, 279명이 인터넷 비몰입자로 분류되었으며, 인터넷몰입집단이 더 우울하고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원(2001)은 서울 및 경기지역 중·고·대학 재학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중독고위험군이 36.5%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남녀공학 중학교 중 각각 2개교씩 총 4개교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송미화(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중독정도는 50.82점(최소20-최대100점) 수준이었으며, 비중독적 사용자는 23.1%, 중독적 사용자는 66.1%, 그리고 심각한 중독적 사용자는 10.8%로 구분되었다.

3. 관련연구의 고찰

1)개인관련변수

Griffiths(1997)은 인터넷 중독에 걸리기 쉬운 집단이 10대로 통상 남성이라고 하였는데, 송명준·권정혜(2000) 역시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남성이 77%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였다. 이세용(2002)도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위험군의 비율이 61.6%로 38.4%의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Young의 척도를 이용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중독경향 비율이 39.9%인 반면 여학생은 17.8%로 나타났다. 김교현(2000) 역시 중독위험군에 속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37%로 여학생 13%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55.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혜, 2001).

2)심리관련변수

Fearing(1996)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개인의 기질적 성향에서 찾으려고 하였는데 강박적 성격 장애인 사람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Gunn(1998)도 연령이나, 성보다 우울이나 내성적인 성격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송원영(1998)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영민(2000)의 연구에서 친구관계에 있어 인터넷이 중요할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적은 청소년일수록 중독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김혜원, 2001; 한국여성민우회, 2000). 즉, 현실생활에서 소극적이고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학생에게 인터넷 중독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백상빈(2000)은 환경적 요인으로 학업이나 친구관계에서 지속적인 실패에 기인하여 가상 현실로 도피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조춘범의 연구(2001)에서도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정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또래집단과 학교

선생님, 이성친구 등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인터넷과 관련이 많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조사연구에서 친구관계에 있어 인터넷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48.0%가 친구와 자신이 인터넷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하였으며, 40.0%가 친구들과의 대화 중 상당부분이 인터넷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계원(2001)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방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23.9%로 나타나 부모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방치, 부모의 과잉기대와 애정, 교사의 지지, 자기 통제, 자아존중감 등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든 청소년인 경우 보다 다양한 변인, 예를 들어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3)가족관련변수

홍경희(2002)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부모님의 부정적인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생활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도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영민(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부모의 통제가 증가하면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가족관계이거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인터넷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불충분한 가정교육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습관, 부모와의 대화 단절은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부진, 2000; 이영분,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인터넷 사용능력이 청소년의 인터넷 활동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의 음란 사이트 접속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김혜원의 연구(2001)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중독적으로 빠져든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이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일 때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보다 어머니의 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춘범, 2001).

4) 인터넷이용관련변수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많은 경우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량이 많고, 통신 친구 수, 통신이용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이용시간과 통신중독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Kennedy, 1998).

송명준·권정혜(2000)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비중독자는 약 7시간 정도 사용하여 절반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민(2000)의 연구에서도 사용시간이 길수록, 정보보다 오락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자기 방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게임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홍경희, 2002).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연구대상인 청소년을 조사의 편리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중학생 200명과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각 160명을 표본을 표집하였다. 여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률로 선정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지역별 학생 수에 비례하게 수를 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2001년 10월 5일에서 10월 1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를 520부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47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Y = f(\text{개인관련변수, 심리관련변수, 가족관련변수, 인터넷 이용관련 변수})$$

여기에서 Y는 인터넷 중독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평가척도를 수정한 3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30점-150점 범위)에 의해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에 따라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30-59점), 가끔 문제 발생 이용자(60-104점) 및 인터넷 중독자(105-150점)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특징에 따라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개인관련변수로는 성별, 학교성적, 형제수를 포함시켰으며,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심리관련변수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사교적 성격의 정도와 학교 생활에서의 적응 수준 및 가정생활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가족관련변수로는 주로

자녀의 훈육과 지도를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되는 어머니의 특징으로 구성하였는데,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와 함께 가족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 정도를 포함하였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변수로 월평균 가계소득, 가계지출, 저축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용관련변수로는 조사대상자들이 거의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PC방 이용일수, PC방 이용시간 및 PC방 이용비용을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인터넷 중독자 집단을 0으로 가정한 다항범주형 분석(Catmod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인터넷중독수준	인터넷중독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30문항 1=정말 그렇다 3= 그저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관련 변수	
성 별	1=남성 0=여성
연 령	세
교육수준	중학생 1=해당 0=비해당 인문계고등학생 1=해당 0=비해당 실업계고등학생 1=해당 0=비해당
학교성적	중상위권이상 1=해당 0=비해당 중위권 1=해당 0=비해당 중하위권 이하 1=해당 0=비해당
형제수	독자 1=해당 0=비해당 2명 1=해당 0=비해당 3명 이상 1=해당 0=비해당
심리관련변수	
사교적 성격	사회적 관계를 즐기는 정도 1=정말그렇다 5=정말그렇지않다
학교생활의 적응수준	학교생활 적응 정도 1=정말그렇다 5=정말그렇지않다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 만족 정도 1=정말그렇다 5=정말그렇지않다
가족관련변수	
모연령(세)	세
모교육년한	교육년수
모의 취업유무	1=취업 0=미취업
가계소득	실제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가계지출	실제 월평균 가계지출(만원)
저축액	실제 월평균 가계저축(만원)
인터넷사용에 대한 가족통제	가족의 통제정도 1= 통제가 강함 5=통제가 약함
인터넷이용 관련변수	
PC방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일)
PC방 이용 시간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분)
PC방 이용 요금	월평균 이용요금(천원)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인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7.4%, 여성이 52.6%로 여학생이 약간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23세로 이는 조사대상자가 중학생(200명)보다 고등학생(273명)이 약간 더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들의 형제 수(본인을 포함한)는 독자 7.8%, 2명 52.4%, 3명 이상이 39.7%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성격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혼자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은 사교적 성격의 경향이 높았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 26.8%, 중위권 58.7%, 하위권 14.4%로 중위권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은 보통 수준이었다. 가족관련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2.62세였고, 교육수준은 고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67.7%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222만원이었으나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9.6%). PC방 주당 이용일 수는 약 2일 정도였다. PC방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8.8%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PC방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이용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으로 나타나 한국청소년개발원(1999)의 조사결과 75분보다 더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방 이용요금은 월평균 7,600원으로 나타났다. PC방 1회 이용 비용은 1,000원-1,500원 정도가 49.4%로

대부분의 학생이 PC방 1회 이용시 1500원 이하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수준

Young의 인터넷 측정 척도를 수정한 30문항의 평가항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가장 높게 반응한 항목은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이는 특별한 여가나 활동의 대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 텔레비전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이재현, 2001) 중독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중독수준으로는 통신을 하기 위해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데 쓸 돈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통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사람과 거리감을 느끼거나 통신을 안하면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도 높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은 2.35점으로 나타나 중독에 긍정적인 반응의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만점의 총 30문항이므로 30점에서 150점의 분포를 갖게 된다. 이를 100점 만점의 Young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해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본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 중 인터넷 중독자는 4.2%였으며, 대부분(68.5%)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이용자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센터(2001)와 김선우(200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물론 인터넷 중독자의 비율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 평균, 표준편차, N=473)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개인 관련 변수			
본인성별	남	224	47.4
	여	249	52.6
본인연령	15세 이하	200	42.3
	16세 이상	273	57.7
본인교육수준	중학생	200	42.3
	인문계고등학생	157	33.2
	실업계고등학생	116	24.5
형제 수(본인 포함)	독자	37	7.8
	2명	248	52.4
	3명 이상	188	39.7
학교 성적	중상위권 이상	127	26.8
	중위권	169	35.7
	중하위권 이하	177	37.4
가족 관련 변수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134	29.6
	41-43	158	35.0
	44세 이상	160	35.4
어머니 교육년한	중졸 이하	85	18.8
	고졸	285	63.1
	전문대졸 이상	82	18.1
어머니 직업	유	306	67.7
	무	146	32.3
인터넷 관련 변수			
인터넷 사용 경험	유	471	99.6
	무	2	0.4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심리 관련 변수			
사교적 성격(1-5점)		3.35	0.71
학교생활의 적응수준(1-5점)		2.53	0.49
가정생활만족도(1-5점)		2.59	0.65
가족 관련 변수			
월평균 가계소득(단위 : 만원)		222.40	184.23
월평균 가계지출(단위 : 만원)		118.33	157.39
월평균 가계저축(단위 : 만원)		71.34	54.93
인터넷사용에 대한 가족의 통제정도(1-5점)		3.67	0.74
인터넷 관련 변수			
PC방 이용 일 수(일주일 평균)		1.88	1.52
PC방 이용시 평균 이용 시간(분)		95.77	61.82
PC방 이용 요금(월평균, 천원)		7.66	10.95

<표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평균, 표준편차, N=473)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통신 한 시간을 남들에게 줄여서 말한다.	2.33	1.03
통신을 그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잘되지 않는다.	2.91	1.21
통신을 오래하기 위해 잠을 줄인다.	2.37	1.16
통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사람과 거리감을 느낀다.	2.00	0.91
기분이 우울할 때 통신을 해야 기분이 나아진다.	2.56	1.13
다른 곳에서 알게 된 사람보다 통신에서 알게 된 사람이 더 많다.	2.27	1.09
PC통신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툼 적이 있다.	2.61	1.18
실제 생활에서의 행동과 통신상에서의 내 행동은 다르다.	2.37	1.04
내가 통신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	2.27	1.03
하루에 5번 이상 전자우편 사서함을 열어본다.	2.56	1.27
통신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2.03	1.05
통신을 한 이후에 학업성적이 떨어졌다.	2.49	1.11
통신 친구에게 더 속마음을 잘 얘기한다.	2.30	1.13
귀가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통신에 접속한다.	2.70	1.28
오랜 통신시간으로 수업시간에 졸은 적이 자주 있다.	2.25	1.17
통신을 안하면 우울하고 불안하다.	2.00	1.06
밤 늦게까지 통신을 하느라고 늘 잠이 부족하다.	2.15	1.15
통신하고 나면 다리, 허리, 목 등의 통증을 느낀다.	2.61	1.20
통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거나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다.	2.17	1.05
통신을 방해하는 가족에게 순간적이지만 화가 날 때가 있다.	2.62	1.19
통신을 위해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데 쓸 돈을 사용한 적이 있다.	1.98	1.02
친구간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통신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2.08	0.99
통신을 한 이후에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이 흥미 없다.	2.04	1.01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자판을 두드리듯 손가락을 움직인다.	2.12	1.17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PC통신에 관한 것이다.	3.39	1.09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온라인에 접속해야 한다.	2.61	1.23
직접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보다 통신에서 아는 사람이 더 많다.	2.57	1.03
통신에 일단 접속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안정된다.	2.12	1.02
통신으로 인해 현실감각을 상실한다.	2.43	0.88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도 컴퓨터에 접속해서 시간을 보낸다.	1.96	1.22
전체	2.35	0.69

<표 4>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의 분류

(빈도, %, N=473)

집 단 의 구 분	빈도	%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30-59점):	129	27.3
가끔 문제 발생 이용자(60-104점):	324	68.5
인터넷 중독자(105-150점):	20	4.2

높은 것은 아니나 가끔 문제 발생 이용자 집단이 중독의 특성상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 내지 중단자보다는 인터넷 중독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Young의 척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터넷 중독자를 진단하는 반면, 중독가능자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비판(한국정보문화센터, 2001)과 맥을 같이한다.

3.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을 Young의 평가기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세 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 범주분석(Catmod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독립변수들을 선택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기준 집단은 가장 비율이 낮았던 인터넷 중독자 집단이었다.

우선 인터넷중독자 집단에 비해 가끔 문제 발생자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형제수, 학교생활적응수준, 모 연령,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통제정도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학생일 때, 실업계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인 경우, 형제수가 3명 이상에 비해 독자일 때,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을수록, 어머니 연령이 적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통제가 많을수록 가끔 문제 발생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역으로 말해 남학생이고, 중학생

<표 5>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가끔문제발생자/인터넷중독자		평균적 이용자/인터넷중독자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관련변수					
성별 (여)	-0.7131**	0.0319	-0.4523***	0.1279	
교육수준 (중학생)	-0.3737	0.3378	-0.0444	0.1405	
형제수 (독자)	인문계고등학생	-0.5752*	-0.1161	0.1495	
	실업계고등학생	-0.1068	0.3291	-0.0608	0.1309
	2명	-0.8654***	0.3640	0.2191	0.1955
3명 이상					
심리관련변수					
사교적 성격	-0.2600	0.3940	0.1512	0.1631	
학교생활적응수준	1.2686*	0.6889	1.0280***	0.2899	
가정생활만족도	-0.0532	0.5012	0.6156***	0.2094	
가족관련변수					
모연령	-0.1110+	0.0823	0.0016	0.0344	
모의 취업유무	-0.2132	0.2699	0.0345	0.1201	
가계 수입	-0.0002	0.0024	0.0016+	0.0010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통제	-0.2941+	0.1896	-0.0617	0.0941	
인터넷이용관련변수					
PC방 이용일수	-0.0919	0.1673	-0.1336+	0.0825	
상수	2.7370	4.4159	-3.6973*	1.9009	
Likelihood Ratio	593.98				

+p<.10 *p<.05 **p<.01 ***p<.001

보다는 실업계고등학생일 때, 독자보다는 형제수가 3명 이상일 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통제가 없을수록 가끔 문제 발생집단보다는 인터넷 중독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인터넷중독자 집단에 비해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교생활적응수준, 가정생활만족도, 월평균 가계수입, PC방 이용일수였다. 즉 성별이 여학생일 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고,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PC방 이용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남학생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고,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PC방 이용일수가 많을수록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 집단보다는 인터넷 중독자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결과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중독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들(Anderson, 1999; Griffiths, 1997; 안석, 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보다 빈번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수준과 더불어 가정생활만족도가 인터넷 중독자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는데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연구자들(황상

민·한규석, 1999; Young, 1996)의 지적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유의한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연령,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통제 정도, 그리고 가계 수입과 인터넷 중독 수준과의 관계는 가정의 안정적인 상태와 통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C방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통신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난 김세영(1999)의 연구결과와 같이 PC방 이용일수가 많은 것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이용에 의한 역기능 중의 하나인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약물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중독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이고 지식 및 기술수준이 높아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 영향이 보다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교육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Young의 척도와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인관련변수, 심리관련변수, 가족관련변수 및 인터넷이용관련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들을 연구모델에 포함하였다. 제주지역 중학교 및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7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은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 가끔 문제 발생 이용자 및 인터넷 중독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인터넷중독자집단을 0값을 갖는 기준집단으로 하는 다항범주 분석(Catmod)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자 집단이 4.2%, 가끔 문제 발생 이용자 집단이 68.5%, 그리고 평균적 인터넷 이용자 집단이 27.3%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자 집단 자체의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가끔 문제 발생 이용자 집단의 비율이 높고, 전체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은 앞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남학생일 경우 그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컴퓨터 등을 좋아 하는 특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과 접근성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까지 인터넷 기술 중심의 인터넷 교육을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윤리교육 및 의식 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으로 초점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와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관심정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및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집단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방향은 중요한 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정보화 현상에 따라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따른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그 중독의 결과가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개인의 심리적 특징 및 가정과 학교의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했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변수들은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인터넷 중독의 평가 척도의 개발과 함께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려대학교 인터넷중독 온라인상담센터 (2000). <http://psyber119.com>
- 2) 김교현(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와 컴퓨터 중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3) 김선우(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

- 요인에 관한 연구-소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세영(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PC게임방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약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 학 연구 제8권 2호.
 - 6) 박부진(2000), 정보사회의 가족문화, 여성가족생활연구논총, Vol. 6.
 - 7) 서주현(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송명준·권정혜(2000),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현황 및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임상심리학회 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문.
 - 9) 송미화(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11) 서울YWCA(2000), PC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12)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윤영민(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2차 정책 포럼.
 - 14) 윤재희(1998), 인터넷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봉건(1999), 사이버공간에서의 중독 : 통신, 인터넷중독증의 예방과 증상, 사이버공간의 심리. 김영사.
 - 16) 이세용(2000), 청소년 인터넷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 구소.
 - 17)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이정연·최영선(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1권 4호.
 - 19) 이해진(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 인터넷 시대 현명한 부모 건강한 아이들, 학부모용 정보통신윤리 교육 지침서
 - 21)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인문 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한국여성민우회(2000),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대한 연구.
 - 22) 한국전산원(2000), 한국전산원 정보화
 - 23)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2001 국민생활 정보화 현황
 - 24)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25)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I -통신중독증-.
 - 26)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의 PC중독,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27)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2001), 청소년의 컴퓨터 중독 유형과 제반 문제점.
 - 28)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 29) 홍경희(2002),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Alexander, B.K. & Scheweighofer, A. R.(1998), *Defining 'Addiction'*. Canadian Psychology, 29, 151-162.
- 31) Anderson, K.J.(1999),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 32)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ww.apa.org
- 33) Brenner, V.(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 XL 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y Reports 80, 879-882
- 34) Fearing, J.(1996). *Computer Addiction in "Hooked on the Net"*.
- 35) Freeman, M.(1992). *The Addiction Process : Effective Social Work Approaches*, NY, Longman.
- 36) Goldberg(1995).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37) Griffiths, M. D.(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III. Some comments o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 80, 81-82.
- 38) Gunn, D. A.(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 39) Kennedy, B. L.(1998).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nterpersonal Computing and Technology, 6(1-2)
- 40) Orzack, M. H.(1999). *Computer Addiction Services.* http://www.computeraddiction.com.
- 41) Stein, D. J.(1997). *Internet addiction, Internet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54(6), 890.
- 42) Young. K.S. (1998), *Caught in the Net.*
김현수 역
- 43) Young. K.S. (1996).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44) Young. K.S. (1996). *Addictive Use of Internet :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45) 인터넷 중독 3명중 1명, 조선일보, 2002. 1. 15. 29면
- 46) 인터넷 중독중 사회 좀먹는 사이버마약, 한국일보, 2001. 11. 27. 15면
- 47) 청소년 사이버 중독 심각...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야, 조선일보, 2001. 7. 7. 34면
- 48) 중고생 10%, 사이버섹스 경험, 중앙일보, 2001. 5. 2. 23면